

# Morning Meeting Brief

## Strategy

### 한국판 뉴딜, 대전환의 시작.디지털, 그린은 필수 아이템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대전환의 시작 선포, 한국 경제/산업/증시에 중장기 성장동력이 될 전망
- 2022년까지 재정투자 규모는 12.9조에서 19.6조로 확대, 핵심은 ICT 산업, 이를 통해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
- 데이터 산업과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업종의 성장모멘텀 강화 예상, IT(데이터 산업과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비중확대 전략 유지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글로벌 ETF

### 내수소비, 중국 증시 상승 동력

- 7월 중국 증시 상승 속 내수 소비 관련 ETF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 완화적 재정, 통화정책에 따른 고용 안정 기대감이 내수 소비 개선으로 나타난 결과
- 경제 정상화 지속에 따라 점진적 내수 회복은 지속, 다만 늘어난 부채와 역내외 리스크(코로나19 재확산, G2갈등)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커지긴 힘들 전망, 밸류에이션 매력 높아진 후 비중확대
- 비중 확대 시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갈 내수 소비 수혜가 가능한 ETF(CHIQ, KBA) 비중 확대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 산업 및 종목 분석

### [2Q20 Preview] CJ ENM: 힘들 때는 다양한 사업으로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80,000원 유지
- 2Q20 Preview: 커머스/음악 양호, 방송/영화 부진 전망
- 하반기 OIP 1.5천억원(상반기 945억원 대비 +60%)으로 회복 전망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 [2Q20 Preview] 지어소프트: 이익, Capa 동반 상승 국면

- 2분기 오아시스마켓 월 평균 매출액 +27% QoQ 전망
- 2월 트랙픽 폭증 이후에도 누적 회원 증가율 6% 이상 유지, 오아시스마켓 월 평균 매출액 1분기 80억원 → 2분기 100억원 내외 상승
- 누적 회원 수 연초 대비 62% 상승 + 하반기 Capa Up
- 흑자 구간에 들어선 차별화된 새벽배송 업체, 지어소프트의 시가총액은 아직 2,000억원 미만
- 오아시스사의 가파른 성장세 및 수익성 대비 현저한 저평가 상태

한경래, kyungrae.han@daishin.com

### [Issue Comment] SK: 빠져도 너무 빠졌다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00,000원 유지
- 투자지분 매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원 확보
- SK바이오팜 지분 25% 매각시 약 3.7조원 추가 확보 가능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Issue Comment] 대덕전자: 비메모리 투자 본격화, 도약 기대

---

- 2020년 7월 14일 비메모리용 반도체 FC BGA 시장 확대 수요에 대응 차원으로 900억원의 신규 시설 투자 결정(공시)
- 대덕전자의 FC BGA는 대량 생산 구조인 PC용 CPU보다 서버(네트워크), 자동차용 CPU 시장에 진출 예상
- FC BGA 투자 완료(투자기간: 2020.07.14~2021.06.30) 이후, 2020년 연간으로 FC BGA 부문에서 약 1천억원~1,500억원의 신규 매출 기대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

## 한국판 뉴딜, 대전환의 시작. 디지털, 그린은 필수 아이템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대전환의 시작 선포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담' '인공지능(AI) 정부' '그린 스마트 스퀘어'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그린 뉴딜 10개 대표 사업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이라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 이라고 정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에 디지털과 뉴딜을 입히겠다" 고 말했다.

### 한국판 뉴딜, 한국 경제/산업/증시에 중장기 성장동력

- 한국판 뉴딜은 향후 한국 경제와 산업,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첫째, 글로벌 트렌드와 부합하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골자로 한다. 이는 중국의 7대 신인프라투자정책을 비롯한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공개된 ICT 플랫폼 구축,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둘째, 단발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 국가 프로젝트이다. 한국판 뉴딜정책 공개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의미이다. 향후 후속 정책이 공개되고, 이미 공개된 정책들은 구체화되고, 시행될 것이다. 관련산업과 기업이 꾸준히 주목받을 전망이다.
- 셋째, 후속정책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한국판 뉴딜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점이다. 향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월 1 ~ 2회 개최할 예정이다. 당장청, 실무진 간의 협업을 통해 정책 시행에 속도를 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2022년까지 재정투자 규모는 12.9조에서 19.6조로 확대

#### 핵심은 ICT 산업, 이를 통해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큰 변화는 재정투자 규모이다.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개했던 2022년까지 재정투자 규모는 12.9조원이었다. 하지만, 14일 종합계획 발표에서는 19.6조원(51.9%)으로 증액되었다. DNA생태계 강화(95.3%) 녹색사업 혁신 생태계 구축(88.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90.7%)에 투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투자규모나 증가율을 감안할 때 핵심은 ICT투자이다. 이를 통해 전 산업분야의 디지털화를 가속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그린 뉴딜 역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과 기존 산업들과 ICT 기능 접목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데이터 산업과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업종의 성장모멘텀 강화 예상

- 결국 이번 한국판 뉴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업종은 5G 중심의 무선통신, 사·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의 데이터 산업과 2차 전지 및 재생에너지라고 생각한다. 이들 업종은 이미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한 상황이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추가적인 성장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KOSPI는 IT(데이터 산업과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주도로 상승추세가 전개될 전망이다. 정책 기대를 선반영한데 따른 등락과정이 있다면 IT 비중확대, IT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

## 내수 소비, 중국 증시 상승 동력

### 7월 중국 증시 상승 원동력은 재정, 통화정책으로 개선된 내수 소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며 정책 효과가 실현됐다. 중국 통화 당국은 기준율을 연초 10.4%에서 9.4%로 100bp 인하했으며 1년 만기 대출금리(LPR)를 4.15%에서 3.85%로 인하했다. 그 결과 중국 내 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1월 11.6%에서 6월 13.0%까지 상승했다.
-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투자와 산업생산의 개선으로 이어지며 고용 시장의 안정을 가져왔다. 고정 자산투자(FA) 전년 대비 증가율은 4월 -2.2%에서 5월 0.9%로 상승 전환 했고 5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하며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여줬다. 5월 소비자 신뢰지수 내 고용 지표가 118로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며 고용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며 소비 증가의 발판이 마련됐다.
- 고용 안정을 바탕으로 재정정책 효과가 나타나며 내수 소비가 개선됐으며 소비자 기업의 주가가 중국 증시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소매 판매는 5월에 전년 대비 2.8% 감소했는데 코로나 19가 절정에 달했던 1-2월 21.1% 감소를 감안하면 빠른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생필품 및 식품 구매 증가 덕분이다. 또한 지방 정부의 적극적 부양책에 힘입어 승용차 판매가 큰폭으로 늘었는데 5월과 6월 각각 전년 대비 7.2%, 2.1%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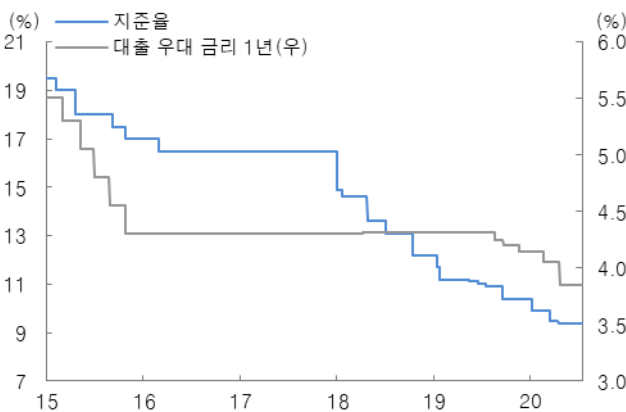
### 내수 회복은 지속될 전망이나 추가적 경기 회복 모멘텀 확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경제 정상화 지속에 따른 점진적 내수 회복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 부양책으로 높아진 경기 회복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커지긴 힘들 전망이다. 올해 저조한 GDP 성장을 감안하면 추가 부양으로 인한 부채 증가가 GDP 대비 부채비율을 우려 수준까지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염두에 두며 2% 부근으로 유지하던 레포 금리를 5월 말부터 2.5%까지 상승하도록 용인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 또는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확산, 미 대선을 앞둔 G2간 갈등 심화는 경기 회복 기대감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내수 소비 수혜가 가능한 ETF 비중 확대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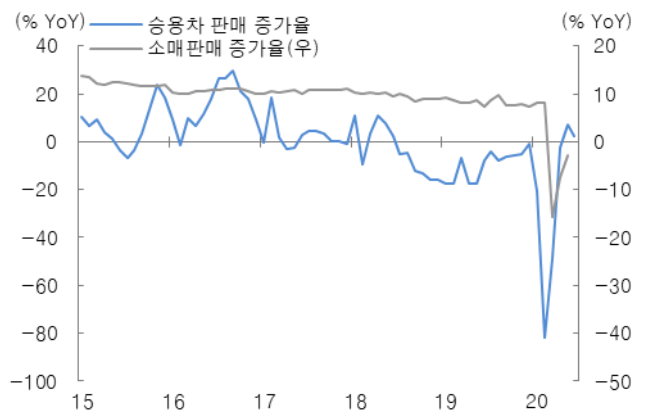
- 따라서 중국 투자를 고려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아지는 시기에 비중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비중 확대 시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갈 내수 소비와 더딘 글로벌 수요 회복을 고려하면 포트폴리오 내 수출 기업 보다는 내수 소비 수혜가 가능한 ETF(CHIQ, KBA)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완화적 통화정책



자료: PBoC, National Interbank Funding Center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중국 소매 판매, 승용차 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NBS, CAAM,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J ENM (035760)

김희재

hojae.kim@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80,000**

유지

현재주가

(20.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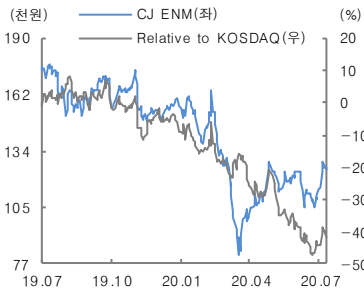
**124,000**

미디어업종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Sky Blue

KOSDAQ	778.39
시가총액	2,72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07%
자본금(보통주)	11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77,300원 / 81,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78억원
외국인지분율	19.17%
주요주주	CJ 외 5 인 42.70% 국민연금공단 5.0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9.1	15.5	-22.6	-29.5
상대수익률	4.6	-9.4	-32.5	-38.3



## 힘들 때는 다양한 사업으로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80,000원 유지

- 12M FWD EPS 9,041 원에 PER 21배 적용 (CJ E&M과 CJO의 PER 5년 평균)

2Q20 Preview: 커머스/음악 양호, 방송/영화 부진 전망

- 매출 8.8천억원(-12% yoy), 영업이익 548억원(-37% yoy) 전망

- 방송 OP 158억원(-57% yoy), 커머스 OP 411억원(+14% yoy)

- 영화 OP -25억원(-125% yoy), 음악 OP 4억원(-92% yoy)

- 방송, 광고는 코로나 영향으로 위축, 콘텐츠 판매는 넷플릭스 판매 등으로 호조

- 방송, 광고 성장률 4Q19 -2% yoy, 1Q20 -29% yoy, 2Q20 -30% yoy 전망

- 방송, 콘텐츠 판매 포함된 기타 매출 +18% yoy 전망

- 커머스, 지난 3년간 2Q GMV 평균 10% 성장, 2Q20 GMV +6% yoy 전망

- 성장률은 소폭 감소하지만, OPM 11%로 여전히 중요한 캐쉬카우 역할

- 영화, 배급은 비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BEP

- 투자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개봉작 부재로 투자 관련 비용만 소폭 발생 전망

- 음악, 아이즈원 미니앨범 발매, JO1 활동에 힘입어 실적 개선 전망

하반기 OP 1.5천억원(상반기 945억원 대비 +60%)으로 회복 전망

- 방송, 3Q부터 광고 회복, 콘텐츠 판매 지속 성장, 20E OP 773억원(+9% yoy)

- 커머스, 디지털 +13% yoy, 성장 주도, 20E OP 1.6천억원(+7% yoy)

- 영화, 7~8월 성수기 관객수 회복으로 20E OP 69억원(-84% yoy), 평균 수준

(단위: 십억원 %)

구분	2Q19	1Q20	2Q20(F)					3Q20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006	811	879	881	-12.4	8.7	871	944	3.8	7.1
영업이익	87	40	53	55	-37.3	37.9	56	63	4.2	14.6
순이익	63	27	37	38	-40.0	41.1	39	44	50.9	15.3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8A	2019A	2020F	2021F	2022F
매출액	2,360	3,790	3,859	4,232	4,395
영업이익	182	269	245	304	331
세전순이익	164	190	251	330	376
총당기순이익	184	59	187	244	278
지배지분순이익	163	104	168	220	250
EPS	11,514	4,754	7,677	10,016	11,411
PER	17.5	33.6	16.2	12.4	10.9
BPS	195,622	134,368	140,788	149,908	159,976
PBR	1.0	1.2	0.9	0.8	0.8
ROE	8.6	3.7	5.6	6.9	7.4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 자료: CJ ENM,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지어소프트 (051160)

한경래 이사  
kyungrae.han@daishin.com saerom.lee@daishin.com

투자이견 **N/R**

6개월 목표주가 **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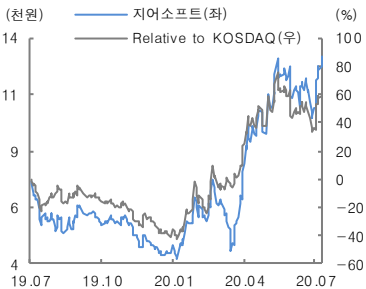
현재주가 (20.07.14) **13,150**

스몰캡업종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DAQ	778,39
시가총액	192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7%
자본금(보통주)	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3,150원 / 3,94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63억원
외국인지분율	2.48%
주요주주	김수철 외 2 인 21.10% 삼성화재투자자산운용 6.4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3.9	34.0	189.3	99.2
상대수익률	9.1	5.1	152.3	74.4



## 이익, Capa 동반 상승 국면

### 2분기 오아시스마켓 월 평균 매출액 +27% QoQ 전망

- 2Q20 오아시스 매출액 623억원(+72.8% YoY, +18% QoQ) 예상
- 오아시스마켓(온라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한 302억원으로 외형 성장 견인할 전망
- 2월 트래픽 폭증 이후에도 누적 회원 증가율 6% 이상 유지, 오아시스마켓 월 평균 매출액 1분기 80억원 → 2분기 100억원 내외 상승
- 5월 재난지원금 효과에 따른 오프라인 채널 수혜도 긍정적
- 2Q20 연결 매출액 647억원(+63% YoY, +14% QoQ), 영업이익 35억원(YoY 흑전, +70.0% QoQ) 전망

### 누적 회원 수 연초 대비 62% 상승 + 하반기 Capa Up

- 2020년 지어소프트 예상 연결 매출액 2,643억원(+65.7% YoY), 영업이익 132억원(YoY 흑전). 오아시스마켓 매출액 2,518억원(+76.9% YoY) 기대
- 2월 트래픽 폭증에 따른 재고 조기 소진 경험. 기존 물류센터 인력 충원 및 제2 물류센터 준비 중
- 제 2 물류센터 규모는 기존 센터 2/3 수준으로 3분기(8~9월) 오픈 예정. 제 1 물류센터 일 주문 Capa는 최대 3만건까지 커버 가능
- 7월 누적 회원수 40만명 돌파하며 연초 대비 62% 이상 증가. 고객당 구매 단가(4만원 중반) 동반 상승에 따른 주문 증가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 흑자 구간에 들어선 차별화된 새벽배송 업체

- 1분기 턴어라운드 기록했던 영업이익 흑자는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
- 마켓컬리 2019년 매출액 4,287억원, 영업손실 986억원 기록. 높은 성장 잠재력 기반 기업가치는 1조 가까이 평가받고 있음
- 지어소프트의 시가총액은 아직 2,000억원 미만. 오아시스의 가파른 성장세 및 수익성 대비 현저한 저평가 상태
- 상반기 언택트 트렌드에 따른 차별화된 주가 상승세는 하반기 지속적인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전망

###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7A	2018A	2019A	2020F	2021F
매출액	100	132	160	264	352
영업이익	1	1	0	13	26
세전순이익	-1	1	-1	13	25
총당기순이익	-1	1	-1	10	20
지배지분순이익	-1	1	-2	8	16
EPS	-95	67	-110	539	1,089
PER	-	48.1	-	24.4	12.1
BPS	495	592	574	1,110	2,199
PBR	4.6	5.4	7.3	11.8	6.0
ROE	-18.8	12.4	-19.4	64.0	65.8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지어소프트,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SK  
(034730)

양지환 이자수  
jhw.yang@daisih.com jane.lee@daisih.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00,000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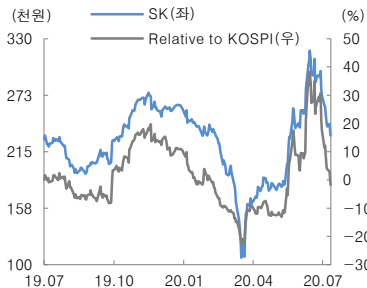
현재주가 231,500  
(20.07.14)

지주업종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Neutral Green

KOSPI	2183.61
시가총액	16,41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20%
자본금(보통주)	1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18,000원 / 107,0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339억원
외국인지분율	21.86%
주요주주	최대원 외 28 인 29.55% 국민연금공단 8.4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7.0	30.4	-6.7	3.6
상대수익률	-19.0	10.9	-4.3	-1.0



# 빠져도 너무 빠졌다

##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400,000원 유지

- SK바이오팜 상장에 따른 자회사 지분가치 증가에도 주가 조정국면 지속
- SK바이오팜 상장으로 SK에 대한 투자 매력도 감소에 따른 것으로 추정
- CGH 지분매각 이후 2019년 하반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결정과 같이 2020년 CGH지분 추가 매각과 SK바이오팜 상장에 따른 투자금 회수로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 위한 배당확대 가능성 높음
- 특히 SK바이오팜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시가총액을 기록함에 따라 향후 지분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가능성 존재

## 투자지분 매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원 확보

- SK의 배당수익은 2016년 5,966억원에서 2019년 1조 2,475억원으로 증가
- 반면 지급배당금은 2016년 2,661억원, 2019년 2,819억원으로 유사한 수준
- SK는 즉시 배당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
- 2019년 하반기부터 투자회수시기 도래. 2019~2020년 CGH지분매각으로 약 2,6조원 회수(SKE&S)
- 2020년 SK바이오팜 구주매출로 3,070억원 회수

## SK바이오팜 지분 25% 매각시 약 3.7조원 추가 확보 가능

- SK바이오팜의 7월 14일 시가총액은 14조 7,620억원
- SK바이오팜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을 이유 없어, 향후 적절한 시기에 지분 매각을 통해 주주가치제고 및 투자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함
- 지분 50%를 남긴다고 가정 시 전일 SK바이오팜 시총 기준 3.7조원 확보
- 이 중 30%만 배당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약 23,000원/주 배당 가능

(단위: 십억원 %)

구분	2Q19	1Q20	2Q20(F)				182020(F)2019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5,148	23,726	20,880	20,880	-17.0	-12.0	19,250	20,875	-16.4	0.0
영업이익	1,165	-923	364	364	-68.7	흑전	299	1,073	6.8	194.7
순이익	117	-187	22	22	-81.4	흑전	446	174	-61.7	695.5

자료: SK,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8A	2019A	2020F	2021F	2022F
매출액	100,162	99,265	86,119	78,331	80,681
영업이익	4,684	3,950	1,552	5,189	3,917
세전순이익	7,558	2,777	852	4,320	2,877
총당기순이익	6,151	1,607	428	2,553	1,669
지배지분순이익	2,253	717	191	1,139	745
EPS	31,767	10,113	2,694	16,063	10,501
PER	8.2	25.9	90.0	15.1	23.1
BPS	234,433	235,255	233,557	246,030	252,829
PBR	1.1	1.1	1.0	1.0	1.0
ROE	14.9	4.3	1.1	6.7	4.2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S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대덕전자(353200) : 비메모리 투자 본격화, 도약 기대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2020. 07. 14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2,000 현재주가(07.14) 9,150원

## 비메모리 반도체용 FC BGA에 900억원 투자 결정 : 긍정적으로 평가, 2022년 매출 성장의 주요 역할

- 2020년 7월 14일, 비메모리용 반도체 FC BGA 시장 확대 수요에 대응 차원으로 900억원의 신규 시설 투자하기로 결정(공시)
- FC BGA는 PCB 분야 중에 최고 기술력을 요구하며, PC용 CPU, 서버 및 네트워크, 자동차용 CPU에 사용되고 있음. 글로벌 경쟁사는 일본의 이비덴(ibiden), 신코(shinko) / 한국의 삼성전기 / 대만의 난야(Nan ya), 유니마이크론(Unimicron) 추정
- 대덕전자의 FC BGA는 대량 생산 구조인 PC용 CPU보다 서버(네트워크), 자동차용 CPU 시장에 진출 예상. 고객은 삼성전자를 포함하여 해외 반도체 업체로 추정. 반도체 미세화, 서버 수요 증가, 고대역폭메모리 용량 증가에 따른 대면적 기판 수요 증가로 FC BGA 응용한 제품 수요 확대 전망. 대면적 FC BGA는 고성능 컴퓨터, 데이터 서버, 통신에 채택된 고성능 CPU, GPU, 스위치에 사용
- FC BGA 투자 완료(투자기간: 2020.07.14~2021.06.30)이후, 2020년 연간으로 FC BGA 부문에서 약 1천억원 ~1,500억원의 매출을 신규로 기대
- 2019년 기준으로 반도체 PCB 매출 비중은 약 44%이며, 이중 메모리 72% 인 점을 감안하면 비메모리 분야의 투자 확대는 필요 판단. 5G 및 AI(인공지능) 시장 확대로 비메모리 수요 증가가 높을 것으로 판단. 상대적으로 매출 비중이 낮은 비메모리 사업을 확대 전략으로 해석. 또한 경쟁이 심한 BGA(CSP, FC CSP 등)보다 차별화된 기술 요구하는 FC BGA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판단. FC BGA 투자 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022년 이후, 매출 증가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전망
- 분할전 대덕전자의 투자의견(매수)과 목표주가(12,000원)을 그대로 유지



####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